

說 教

주님의 성찬을 통하여

＜누가복음 9:1~3＞

나카에 요이치 목사 (히로시마 교회)



10월 첫째 주일은 ‘세계성찬일’로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세계성찬일’ (World Communion Sunday)이란, 다른 문화와 경제, 정치적 상황에 있어도 세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서로 나누는 것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하나인 것임을 자각하고 서로가 안고 있는 과제를 함께 진다는 결의를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지금은 이 성찬식에 여러 가지 신학적 의미가 붙어서 교회와 또한 우리들 신앙에 아주 중요한 교회 의례(儀禮)가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그 생각에 힌트를 주는 것이 예레미야 16: 5 ~ 7에 있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16장에는 “통곡하여도 슬퍼하여도 이미 늦었다” “평강도 인자도 사랑도 빼앗긴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도 매장하거나 슬퍼하거나 해 주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무서운 선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喪事)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7절)

이 말씀의 배경에는 원래 유대인에게는 사자(死者)를 애통하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떡을 떼거나 잔을 주거나 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도리에 어긋난 죽음을 당하셨기에 제자들은 그 죽음의 뜻을 그 때에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의 죽음을 애통하고 또 서로 격려하기 위해 떡을 떼며 위로의 잔을 나누는 의식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윽고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상기하여 유월절에 양을 잡아 찢고 피가 흘러 내리는 이미지와 겹쳐진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의 죽음의 뜻을 상기하기 위한 기독교의 의식으로서 확립되어 갔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서 받은 충격을 회복하기 위해 제자들은 우선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 오던 떡과 잔의 식사를 시작한게 아닐까요? 그것은 우리가 장례식 후에 먹는 친족들의 식사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추억을 이야기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을 극진히 보살피셨고 연약한 형편에 처해있는 사람에게 잘 해 주시고 고독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셨는지, 그리고 개성이 강하고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서 제자로 받아들여 그들에게 차별의 벽을 넘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지, 그런 것을 각자의 생각대로 이야기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의 성찬식이란 아마 예수님의 추억을 이야기 하는 조상의 식사회 같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식사회를 한 번으로 끝내기로 하는 게 아니라 몇 번이나 반복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함이 되살아 나오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자기들 가운데 지금도 살아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교회”에서의 예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이란 바로 예수님을 서로 나누는 것이며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위한 결심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늘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상기하면서 지금의 이 가혹한 현실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판단받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식탁에는 관념적으로 죄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 배제됨으로 인하여 생활이 궁핍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식사는 바로 목숨을 이어가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식사를 받고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살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성찬을 통하여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양육되고, 또한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먹는 것과 살아가는 힘을 서로 나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在日コリアン文化の創造と多文化共生社会を目指して、在日本韓国YMCAは皆様と共に歩みます。



東京◆ホテル：東京で一番安く便利な宿泊研修施設。フロントは日・韓・英語に対応、24時間営業。
10名様～200名様様の会議及び宿泊研修(50名)も可能。
◆スペースYホール：200席の多目的ホール。セミナー・コンサートなどに対応。
◆韓国文化教室(チャンク・カヤグム・舞踊) ◆韓国語講座
◆YMCA東京日本語学校(3ヶ月～2年、短期研修)
関西◆にほんご教室(新規開講・募集中) ◆韓国民俗芸術科(舞踊・チャンゴ)

税込	平日	休日
シングル	¥6,700	¥6,200
ツイン	¥10,500	¥9,800
トリプル	¥13,500	¥12,600
※朝食¥200(宿泊者価格)		

在日本韓国YMCA <http://www.ymcajapan.org/ayc/jp/> *会員及び教職者割引有。詳しくは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東京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101-0064 東京都千代田区猿樂町2-5-5 ☎03-3233-0611
関西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537-0025 大阪市東成区中道3-14-15 ☎06-6981-0782

서남지방회

2017년하기 수양회 개최 「찬송과 간증, 말씀을 당신에게」 주제로



서남지방회에서 2017년하기 수양회를 8월20일~21일, 別府 파스텔 호텔에서 「찬송과 간증, 말씀을 당신에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서남지방회 각 교회에서 40여명이 모여 가졌다.

別府教会 고문국장로의 찬송 인도와 지방회장 이혜란목사의 교회설교로부터 시작된 1박2일간의 수양회는, 강사 안현수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경기노회, 수지광성교회)의 3회에 걸친 힘찬 메시지와 한국의 6선 국회의원을 지낸 정대철박사의 간증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서남지방회는 최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경기노회와 교류를 시작해 상호 선교적 과제를 나누려 하고 있다. 교류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안현수목사는 과거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기독교 동경회의」에도 수 차례 참가하였으며, 재일대한기독교회 및 일본에 대한 선교적 열정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서남지방회와의 좋은 교류를 기대 한다.

청년회전결

정기 전국협의회 개최 새 임원 선출하여 새 한걸음 내디디

2017년 9월17일~18일에, 토요하시교회에서 청년회 전국협의회 제55회 정기 협의회가 열렸다. 정수환목사의 개최예배 메시지에 이어 기관지 『등대』가 발행된 시대적 배경과 활동의 역사를 설명하였다. 청년들에게 있어서 활동의 의미를 새롭게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신 임원을 선출하고 폐회예배에는 아라이 유키목사의 메시지에 큰 힘을 얻어 새로운 출발을 하는 청년들을 응원할 수 있으면 한다.

〈새로운 중앙위원〉

吳眞雅(代表)、梁政宇(副代表、渉外部長兼務)、李智熙(書記、財政部長兼務)、張晶洙(総務、広報部長兼務)、文野直美(企画部長、灯台編纂事業部長兼務)、文瑠珂(地方会青年会振興部長)、末松律子、文美華、乾春紀

(신도위원장 김신야)



나라교회 김병석장로 소천 1986년 수세 이래 교회에 온갖 봉사를 다해



지난 6월28일, 나라교회 김병석 명예장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향년 90세)

고 김병석장로는 1928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1986년 나라교회 박진열목사로부터 세례를 받고 나라교회를 위해 봉사의 수고를 다하였다. 1990년 장로 장립을 받았다.

히라노교회

창립70주년 예배 거행 성악가 초청하여 찬미콘서트로 기쁨 나눠

2017년8월27일 오후 4시, 히라노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였다. 이를 기념하고자 찬양사역자 도키타 나오야씨를 초청하여 기념콘서트를 열어 주변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며 70주년의 기쁨과 감격을 함께 하였다.

이날은 특히 히라노교회의 역사에 못지않은 오랜 세월동안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며 예배의 본이 되어 온 정장림집사와 은영세집사의 명예집사 추대식도 거행하여 두 직분자의 그간의 헌신과 공로를 치하하는 감사패도 증정하였다. 도키타 나오야씨의 영혼에 울리는 찬양과 스피치, 히라노교회 신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애찬, 행사장 뒤에서 드러나지 않고 섬긴 섬김의 손길들이 집회에 감동과 품격을 더해 준 잊지 못할 기념집회가 되었다. 아울러 이번 창립 70주년기념집회를 계기로 히라노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충실하며, 향기로운 예배와 겸손히 말씀을 배우고, 서로 섬기며, 건강한 교회를 세워 나갈 것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후쿠오카교회

창립 90주년 기념행사 성황 9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전도집회도 개최

2017년에 창립 90주년을 맞이하는 후쿠오카교회가 교회창립 90주년 기념행사를 9월로서 다 마쳤다. 지난 5월28일 오후4시, 서남지방회 각 교회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감사와 기쁨의 「후쿠오카교회 창립 90주년 기념예배」를 드렸으며, 이옥기권사, 김민수, 김창욱, 염문철 안수집사의 임직식도 거행하였다.

그리고 이 창립90주년을 기념하여, 전 교인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서울 동교동교회의 음동성 목사를 초청하여 창립90주년기념 심령부흥회를 9월9일(토) 10일(주일) 이틀간 개최하여 말씀을 통하여 전 교인이 믿음을 더욱 굳게 다지며 은혜를 받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후쿠오카교회는1923년 이곳 후쿠오카시의 요시즈카에서 기도회 모임으로 시작되어 1927년3월2일에 정식으로 조선예수교회 후쿠오카교회로서 출발하였는데, 전쟁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1945년 조국의 해방으로, 귀국선을 타기 위해 수 많은 동포들이 교회가 가까운 하카타 항에 모이게 되고, 교회는 그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힘을 기울였다. 1946년, 남아있던 다섯 가정과 전영복목사에 의하여 교회는 새출발을 하였다.

1961년에 부임한 김덕성목사의 목회 시기에 두번 째 교회당을 헌당했고, 이상주목사의 시대인 1985년10월23일에 현재의 교회당을 건축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역사의 격랑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창립90주년을 맞이한 후쿠오카교회는 이제 100주년을 향해 새 걸음으로 출발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새 희망을 향해가는 후쿠오카교회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릴 따름이다.



세계개독교회공동체 (WCRC) 라이프치히 총회에 참석하고 (2)

총회장 김 성 제 목사

총회에서 한국 교회가 주목할만한 것은, WCRC가 2017년부터 2025년 광복절 80 주년을 향해 한반도의 치유·화해·평화통일을 위해 에큐메니칼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해 갈 것을 표명하는 이벤트를, 금번 총회에 조선그리스도교연맹 대표자 4명을 초청하여 거행한 것이다.

북한교회 대표들은, 높아지는 긴장 속에 있지만 적대감을 해소하고 외국 간섭없이 자주적 평화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의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교회 대표들과 함께 우연히 이번 회의가 독일의 동쪽에 위치한 라이프치히에서 개최되면서 또한 도시의 중심부에 성니콜라이교회에서 동서 독일의 통일을 기념하는 예배에 참여하게 되어 깊은 감명을 받았다.

1989년 10월 베를린 장벽을 노도와 같이 극복해 가는 사람들의 대열이 성니콜라이교회에서 반복된 평화 통일 기도회에서 출발 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동독 시대에 이 성니콜라이교회의 복지(살림) 사업을 당시 서독 교회가 인내하며 지원을 계속했다는 것에 나는 큰 감동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쓰고 싶은 것은 이 총회 기간 중, 7월5일에 역사적 <비텐베르크 공동성명>이 조인된 것이다. 벌써 1999년에 루터교회 세계연맹(LWF)과 개톨릭교회와의 사이에 <의인 교리에 관한 공동 선언문>이 교환되었고 2006년에 세계 감리교협의회(WMC)가 여기에 참가, 서명했다. 그리고 금번 WCRC가 이 공동성명에 새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 조인식은 비텐베르크의 성마리아교회에서 거행되었으며 WCC(세계교회협

의회) 대표, 러시아 정교회, 메노나이트와 대표자들도 동석하여 지지를 표명하였다. 이것으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의인론에 관해서 개신교회와 개톨릭교회와의 사이에 신앙의 일치를 확인하는 큰 진전이 있어 역사적인 첫 걸음을 시작했다고 본다.

금번 총회에서 향후 7년 총회기 동안 새로운 회장으로서는 레바논의 여성목사 나이라 캣사브씨가 선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재일대한기독교회회가 1945년12월에 일본 기독교단을 탈퇴하여 재건된 후에 최초로 소속하게된 연합조직이 WCRC의 전신인 세계개독교회연맹(WARC, 1958년10월)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 총회의 와중에 지난 봄에 탄생한 <마이너리티 선교센터> 설립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베를린 최대의 난민 캠프를 방문한 것도 의미가 깊었다.



대마도 소식

한국 관광객의 증가로 섬 전체에 활기가 넘쳐

박 영 철 목사 (대마 은혜 전도소)

최근 대마도는 한국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섬 전체에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부산과 가까운 북쪽 항구 히타카즈(比田勝)에는 평일에도 여섯 편의 선박이 운항되고 있으며, 주말에는 2천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좁은 대마도 도로에는 차량행렬이 끊이지 않고, 곳곳에 호텔과 펜션이 들어서고 있으며, 면세점과 대형마트는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상점가 한복판에서, ‘독도는 일본 땅’ 이라고 쓴 머리띠에 대형 일장기를 들고 하루 종일 시위하던 주민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마도는 제주도의 절반 가까운 큰 섬입니다만 인구는 31,500명에 불과합니다. 90% 이상이 삼림이고 농경지는 협소하며 수산양식과 임업 외에는 수입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은 궁핍하고 젊은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일자리를 찾아 본토로 떠납니다. 따라서 대마시장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관광지로서 크게 내세울 것 없는 대마도에 한국 관광객들이 찾아주는 것 자체가 놀랍고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사력을 다해 한국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마은혜전도소는 대마도의 중심지 이즈하라(厳原)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마도 주민들은 물론, 한국 관광객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늘 긴장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도는 모두 12명인데, 모두 관

광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 오전예배 참석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일 오후예배(일본어 예배)나 저녁찬양예배, 아니면 아침기도회 시간이라도 참석하고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원하는 대마도 주민들이 많습디만, 박목사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더 이상 반을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어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어교실 외 매월 주민들을 위한 문화교실을 진행하고 있는데, 각종 미니콘서트를 비롯해서 신앙집회, 드립커피모임, 한국 음식만들기 이벤트, 어린이 여름문화교실 등을 개최했습니다. 겨울에는 김치만들기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에 모이는 노래교실에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들 가운데 기독교에 대해, 그리고 교회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만, 정식으로 등록한 분은 아직 없습니다. 시골이기 때문에 교회 출석에 더 많은 제약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눈에 보이는 결실이 없어 답답할 때도 있지만,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국내선교사 보고 교포2세 국내선교사의 자전적 선교보고

東京神學大學 박 현 욱 목사

제일대한기독교교회(이하 KCCJ) 총회에서 최초의 국내 선교사로 파견받은 저는 이번에 15년 만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교보고의 기회를 갖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일교포2세, 2대째 목사로서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저의 발걸음을 자전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신학교수로서의 선교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선교협약이 체결된 일본기독교단(이하 교단)의 교단신학교인 동경신학대학(이하 TUTS)은 저의 모교이며, 재학 중에는 이인하 목사님이 목회하던 가와사키교회에 출석, 봉사하였습니다. 1974년 2월 대학원 수료 후 언어와 문화, 교회와 신학을 배우고자 KCCJ의 지도와 알선으로 2년간 모국 유학을 하였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있지만 활기찬 사회와 문화, 헌신적인 목회의 모습, 독재 정치와 민주화 운동을 처음으로 보면서, 제일교포 2세로서 강렬하고 귀중한 모국 체험이 되었습니다. 연세대학 어학당에서 모국어를 배우면서 처음 1년은 감리교 신학대학과 동대문 감리교회서 연수하고, 2년째는 대한예수교장로교(통합)의 신학대학 대학원 석사과정과 정릉교회에서 배웠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신학대학(한신대)의 주 1회 신약 성서신학의 수업도 청강했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지만 감리교에서는 웨슬레가, 장로교에서는 칼빈이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각각 감리교와 장로교회의 전통을 계승하는 의식과 주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의 연합으로 세워진 KCCJ와 교파를 초월한 합동교회의 교단신학교(TUTS)에서 에큐메니칼한 교파의식이 별로 없는 배경에서 자란 저에게 이것은 놀라운 것이었으며, 교파적 교회와 신학교의 전통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 좋은 경험이었습니

다. 일본에 돌아온 후 1976년부터 교토교회에서 전도사로 2년반을 섬기고(동년 5월 강도사 인허), 그후 오카야마교회에서 담임목사로 5년간 목회했습니다. (1978년 10월 목사안수)

그 후, 1983년 7월에 독일의 튀빙겐대학 신학부에 유학, 5년간 신약신학을 연구하고(신학박사), 1988년 일본에 돌아와 4월부터 관동지방회의 니시아라이교회에서 8년을 목회했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두 가지의 일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연로하신 윤중은목사님이 정기총회에서 제창하고 마침내 실현된 총회신학교(장소:동경교회)에서 10년 정도 가르치며, 교무주임 및 이사직을 감당하며 운영했습니다. 또 하나는 교단과 선교협약에 따른 실질적인 교회 간 교류의 선구자였던 니시아라이교회에서 사역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는 ①인근 여러교회 관계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어머니 학교에서 봉사했는데, 한국에서 와서 사는 젊은 주부들에게 매주 토요일 일본어를 가르치는 자원봉사 활동을 도왔고 ②교단 동경교구 히가시지구의 여러 교회와 연 1회 연합예배와 강연회를 가졌으며 히가시지구 정기 총회마다 초청을 받아 인사했습니다. 또한 ③최초의 '한일 찬송가'를 만들 때 엄정한 일본어 번역 가사를 붙이기 위하여, 당시 찬송가위원회의 위원였던 제가 동경교구 히가시지구 음악위원회를 교섭, 협력도 언어 발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교인 東京神學大學에서 뜻하지 않게 실천신학(기독교 교육) 부문의 신학 교수로 초빙을 받아 1994년 4월부터 전임 강사가 되고, 그 후 조교수, 교수로 승진해 올해로 23년 반을 재직하고 있습니다. 초빙을 받을 때는 개인의 자격으로 계약하여 전임강사가 되었지만, 8년 후인 2002년 11월에는 KCCJ와 교단과의 선교 협약에 의거하여 KCCJ에서 일본기독교단 신학 교수로 파견되는 국내선교사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 후 두 가지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단에서 '파견받은 선교사'로 정회원 목사 가입이 이루어지고, 몇년 후부터는 격년으로 개최되는 교단 정기 총회에 총대로 매년 참석하였으며, 지금은 세계 선교위원회의 위원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역대 기타모리 카조 목사와 쿠마자와 요시노부 목사의 후임으로 2003년 4월부터 교단의 치토세후나바시교회의 초빙을 받아 현재까지 14년 반 동안 담임목사로 겸임하여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대한기독교교회의 경우와는 다른 여러 가지 특징과 과제는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목회(영혼에 대한 배려)와 복음 전도는 같은 것이라는

것을 날마다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선교사로 동경에 있으므로 KCCJ 관동지방회 정기총회 및 임직원 회의는 가능한 배석하여 교역자와 성도의 교제를 계속 이어왔습니다. 동경 한국 YMCA 이사도 맡고 있습니다.

내년 3월말에 東京神學大學(TUTS)을 정년 퇴직하게 되어 그에 따라 겸임해 왔던 치토세후나바시 교회도 자원하여 사임하게 되어 KCCJ의 국내 선교사의 사역은 일단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KCCJ의 목사로서 TUTS의 신학 교육에 종사하는 경우는 처음이었으므로 그만큼 KCCJ와 일본기독교단과 TUTS에서 '저'라는 존재의 상징적 의의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TUTS에서 저는 신약성서신학의 연구를 기초로 한 '실천 신학·기독교 교육' 부문 전임 교수로서 '기독교 개론'과 '기독교 교육 특강', 또한 '아시아 선교 이론 연습'과 '종교 교직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 과정' 과목을 학부 및 대학원 학생(박사 과정생까지 총 약 110명 재적)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2학기에 걸친 '아시아 선교 이론 연습' 강의가 끝날 무렵에는 수강생 중심으로 실제로 아시아 국가(필리핀, 홍콩, 중국, 대만, 한국)를 2년에 한 번, 교회 연수 여행을 실시하였는데 최근 20년은 제가 인솔했습니다. 국내 목회에 헌신하는 일본 신학생들이 아시아 여러 교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전도·신학·교회 간의 교류를 심화하는 귀중한 연수 여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단의 목회자 양성 기관이므로 당연히 교단 소속 신도가 신학교에 입학과 편입학하고 있습니다만, 2차 대전하의 교단 창립 때부터 여러 교파 신학교 연합(Union)을 기초로 하는 신학 단과대학의 학교법인의 신학대학이므로 다른 개신교 여러 교파 교회에서 온 헌신자들도 적지 않으며, 최근에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시아 선교에 대한 신학적 사명도 오래 전부터 자각하고 실천하여 왔으므로 지금도 동북 아시아(한국, 중국 [조선족 포함], 대만 등)에서 온 유학생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 유학생과 연수생이 가장 많고, KCCJ의 교회로부터도 본신학대학에 입학해 옵니다. 신학 여러 분야의 엄격한 기초적 훈련을 수년간 받은 졸업생들이 교단과 KCCJ, 다른 교파 교회에서 식견 있는 전도사와 목사로서 책임있는 직무를 개교회와 교단의 여러 조직들과 기관에서 섬기고 있는 모습은 믿음직스러운 한편 신학 교수로서의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 관련하여 한 가지 마음이 아픈 것은 TUTS을 수료한 KCCJ 신학생들을 관동 지방회를 예로 들면, 전도사로 받아 끝까지 목사로 길러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역자를 받는 교회의 규모나 재정적 곤란이나 성향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학교 외의 국내외 기독교 여러 학회나 조직에도 멤버로 활동하며 이사 등 책임있는 봉사도 미력하나마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학 관계의 저서와 논문이나 강연 등 학문적 공헌도 다방면에 이릅니다.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은 기독교 여러 학회의 회원으로 관련된, KCCJ 등 제일 동포의 신학자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부디 앞으로 교회의 실천적·행정적 제반 활동에만 머무르지 않고 본격적인 학문적 신학 연구 활동을 통해 교회와 목회자를 근본적으로 지원하고 제언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미 한, 일, 제일의 세 교단의 선교 회의 등에서 의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헌신적인 선교의 사명을 안고 한국에서 KCCJ와 교단을 통해 일본에 오는 선교사와 가족 및 수송 교회의 문화적인 부담과 어려움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일본의 언어·문화·생활 습관·교회·신학의 기본적인 힘과 이해와 감각을 기르고 교회 관계자와 인적 친분과 교류를 심화시키기 위하여 TUTS를 포함한 일본 각지의 신학 교육 기관에 몇 년 동안 적을 두고 연수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 목회와 선교에 대한 넓이와 깊이를 더하게 되며 많은 실질적인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립니다.

